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文, 남북협력 재시동? 비핵화 불씨 되살리나

가장 아쉬웠던 일 '북미회담 결렬' 대북제재 속 시행 가능한 카드 꺼내 이산가족 北 개별관광 추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난 후 남북관계 및 북미협상 촉진을 위해 어 떠한 메시지를 낼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집권 4년차를 맞이하며 임기 후반부를 달리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와야 할 시기인 셈이다. 북한으로부터 평화통일 관련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의미심장한 남북관계 메시지를 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가장 아쉬웠던 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결렬'을 꼽았다. 1년만에 급속히 냉각기를 갖게 된 남북미 관계의 변화를 실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우선 시행 가능한 다양한 카드를 집중적으로 꺼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카드로는 ▲개별관광 허용 ▲접경지역 협력 ▲남북 철도 연결사업 ▲스포츠 교류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설 명절 영상메시지를 통해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있다"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

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이산 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남북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현재 정부도 '이산가족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새해 첫 달부터 낙관적인 대북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남북 화해 분위기가 성과를 거두며 북미대화의 급속한 전진으로 이어졌던 과정을 다시 이끌려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현재 묵묵부답이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다음달 초 북한의 대남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매년 2월초 정부·정당·단체 연합회 의를 열고 대남정책 등을 발표했다는 게 외교계의 종론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남북 관계 개선 행보에 북한이 당장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주로 대남 입장에 대해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해왔던 만큼, 한 달의 침묵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세종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효율적 시간관리 위한 코칭

세종대학교 창의교육개발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13일~14일까지 광개토관에서 '목표가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한 시간 관리전략'을 주제로 학업코칭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여 의미 있는 학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변혜진 연구원이 코치로 진행했으며, 20여 명의 재학생이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온라인 자기조절학습검사(SLT)를 거쳤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그룹을 만들어 각자가 가진 학습 강점과 약점을 토의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학습전략을 지도받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체계적으로 2020년 목표를 세우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수한 박승한 학생(디지털콘텐츠학과·15)은 "다른 강의들과는 다르게 맞춤형 학습전략을 습득하게 되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여 의미 있는 학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변혜진 연구원이 코치로 진행했으며, 20여 명의 재학생이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한용수 기자

성균관대 MBA, 9년연속 국내1위 세계54위

2017년부터 4년연속 50대 MBA 선정
졸업생 경력개발, 승진 등에서 높은 점수
'학생 해외경험' 국제화 지표 순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석사(MBA) 과정이 글로벌 평가에서 9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성균관대는 SKK GS B가 27일(한국시간) 파이낸셜타임스(TF)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 주간 MBA 평가에서 대한민국 1위, 아시아 13위, 세계 54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FT 주간 MBA 평가는 매년 세계 상위 MBA 100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서 1위는 미국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2위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3위는 스텝포드대 경영대학원이 차지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성균관대 SKK GSB가 유일하게 세계 54위로 평가됐다. 성균관대 SKK GSB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세계 100대 MBA이자, 국내 1위 MBA로 선정되

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세계 MBA 랭킹에서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50대 MBA로 평가받으면서 글로벌 명문 비즈니스 스쿨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아시아 비즈니스 스쿨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세계 50대 MBA 중 7개교가 중국 비즈니스 스쿨이었고, 이 가운데 CEIBS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위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국립대(NUS) 15위, 홍콩 HKUST 19위 등 14개교가 50위권 내에 포함됐다. 50위권 아시아 비즈니스 스쿨

은 2018년 7개교에서 2019년 12개교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성균관대 SKK GSB는 ▲ 졸업생 경력개발, 승진 ▲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 학생 증가 등의 프로그램 다양화 ▲ 재학생의 국제 경험 증대 등 졸업생의 경력개발 성과 및 프로그램 다양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해외 경험 세계 13위 → 세계 7위, 외국인 학생 비율 세계 41위 → 세계 29위 등 MBA 학생들이 중시하는 국제화 지표들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한용수 기자 hys@



성균관대 SKK GSB 국제관

올해 고1 대입, 16개 대입 수능 40%로 확대

2020학년도 대입 수시비중 80% 육박
사교육영향 큰 전형, 정시로 가는 셈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로 영향력 감소

최근 교육당국의 대입 제도 개편과 공정성 강화 방안 등에 따라 매년 수험생들의 대입 제도가 바뀌고 있다. 2023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올해 고1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크게 보면 대학수학 능력시험(수능)의 확대와 학생부 기재방식의 변화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수능전형 확대가 꼽힌다. 지금까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확대에 따른 수시모집이 주요 전형이었다면, 올해 고1부터는 수시모집은 줄고, 정시모집은 확대된다. 2020학년도 대입만 보면,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전국 대학 기준으로 80%에 유파했고,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대체로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뽑았다.

하지만 2023학년도의 경우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위주로 수능위주 정시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라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 개선 현황

구분		22~23학년도 대입
교과활동		과목당 500자, 방과 후 학교활동 내용 미기재
종합의견		연간 500자
비교과 영역	자율활동	연간 500자
	동아리활동	연간 500자.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만 기재.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진로활동	연간 700자.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독서활동	도서명과 저자	

자료/ 진학사, 교육부

고 권고했다. 교육부 정시 모집 확대를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해 대학들은 대부분 이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능전형 4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권고받은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학생부 축소는 학종 평가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입시업계에서는 학종 평가에서 양보다 질적인 측면의 평가가 강화되므로 학생들은 무분별한 스펙 쌓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진로에 맞는 활동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반면, 수업시간의 학생의 태도와 학업적인 역량이 기재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도록 해 학교 수업에 열만큼 성실하게 임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는 등 학생부 영향력은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고2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주요 변경사항의 특징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들의 축소다. 구체적으

로 고과 활동에 방과후활동을 적을 수 없고 소논문 또한 기재해서는 안된다. 자율동아리는 연간 한 개만 기재가 가능하며 교내수상은 수상여부에 상관없이 학기당 1개씩만 대입에 반영할 수 있다.

학생부 축소는 학종 평가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입시업계에서는 학종 평가에서 양보다 질적인 측면의 평가가 강화되므로 학생들은 무분별한 스펙 쌓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진로에 맞는 활동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반면, 수업시간의 학생의 태도와 학업적인 역량이 기재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도록 해 학교 수업에 열만큼 성실하게 임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종로구와 '지역인문학' MOU

연세대학교는 언어정보연구원이 최근 종로구와 지역 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인문한국 플러스(HK+) 사업단으로 선정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기반 인문 언어학'이라는 아젠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회 발전과 변화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대중강좌를 개설해 지역 주민들의 인문언어학적 소양 함양을 돋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올 한 해 동안 종로구와 연계해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석재 언어정보연구원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운영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중부학교통합지원센터가 지난해 8월 실시한 기본과정에 이어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